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구세주를 아는 아들(찬14/새26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수 집사 2부/김건성 장로 3부/김성귀 집사 4부/전혜린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이 기쁜 소식을(진선미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9:12-17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6:41-59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Come & See 미라클(7) 날이 저물어 갈 때 남은 열두 바구니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2)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가 일하시네, 예수 피를 힘입어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은혜의 보고(寶庫)

The Treasure Trove of Grace (寶庫)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길을 오를 때 못 보았던 들풀이 내리막 길에는 향긋하게 응원하는 미소를 띄고 응원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목표만 보이고, 먼저 정상에 오르려는 경쟁심이 좌우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눈 길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고, 자기 속도를 측정할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서, 완보 하며 주위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겸손히 피어 있는 들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의 시야의 각도가 다르고, 빛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는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감지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오르막 보다는 내리막에서 더욱 확실하게 초점이 맞습니다. 내가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내 계획대로 올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설계가 속절없게 되고, 더이상 경쟁할 대상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나의 안녕을 걱정하며 기도해 주던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를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대상들이 내려 올 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 길에서 만나는 은혜를 놓치면 안됩니다. 정상을 향하여 오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려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고 육체가 고장나는 시기가 옵니다. 건강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가까움이 건강을 잃고 병원을 다니는 초초한 시간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르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을 더욱 꼼꼼히 디더 밟고 내려가야 합니다. 빨리 내려가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닦혔을 때, 빨리 고난을 끝내 달라는 기도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놓치지 않고 보게 해 달라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걸음 앞서 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정진하면 성공하는 날이 온다는 격려입니다. 그러나 두 걸음의 올라섬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기 위함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러 설 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오를 때 몰랐던 것을 내려갈 때 깨닫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여유라 부릅니다. 내리막 길을 즐기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의 보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We frequently discover that the wild grass, which we failed to see on our way up the path, smiles fragrantly and cheers us on during our descent. When climbing a mountain, only the goal is visible; a competitive urge to reach the summit first leaves no room for our eyes to wander to the beautiful scenery unfolding to our left and right. However, on the way down, there is no need to compete with anyone, and no longer a need to measure one's own speed. As a result, we walk slowly and have room to enjoy our surroundings. That is when the humbly blooming wild grass catches our eye.

Scientifically, one could explain that what we miss from our line of sight is because the angles of vision and the direction of light differ between uphill and downhill paths. Likewise, peace of mind 'this room to breathe' influences what we see, what we feel, and what we perceive. In that sense, our gaze toward God also aligns and focuses much more clearly on the downhill path rather than the uphill one. On the path where I am climbing according to my own plans toward a set goal, God is not visible. However, when my plans come to naught and I reach a state where there is no one left to compete with, that is when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prayed for me, worrying about my well-being, come into view.

Spotting things on the way down that we completely missed on the way up is due to God's special grace. Therefore, we must not miss the grace we encounter on the downhill paths of life. Those who climb toward the summit inevitably come back down. No matter how healthy you are, a time comes when you age and the physical body breaks down. God's closeness, which went unnoticed during times of good health, begins to be felt during those humble hours spent visiting hospitals after health is lost. Therefore, we must tread the downward path even more meticulously and deliberately than the upward one. There is no need to pray to descend quickly. When hardship strikes, rather than praying for it to end quickly, it is right to pray that we do not miss seeing the things that we couldn't see before the hardship.

There is a saying that one takes a step back to go forward two steps. It is an encouragement that if you forge ahead without despairing over failure, a day of success will come. However, I would like to say that taking two steps forward is for the purpose of stepping back one pace later. Furthermore, when we step back, we see more and feel more. What we did not know when climbing, we realize when coming down. I call this the leisure of faith. Enjoy the downhill path. Do not waste your hardships. The treasure trove of the Lord's grace is right there.

주일설교시리즈

COME & SEE

# 미라클 (7)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날이 저물어 갈 때 남은 열두 바구니

(눅 9:12-17)

**1.** 우리의 삶은 결핍, 부족으로 점철됩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늘 따라다니는 것이 결핍과 부족입니다. 지금의 결핍을 나눠 보십시오.

**2.** 오병이어 사건은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미라클 스토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_\_\_\_\_ (20절, 참고/ 마 16:16)

2) \_\_\_\_\_

**3.**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제안은 어떤 의도였을까요?(13절, 참고/ 요 6:7, 막 6:37)

**4.**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무엇이라 적고 있습니까? 참고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2절, 14절, 참고/요 6:4)

**5.**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참고 구절을 읽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결핍이 아니라, 남는 것은 무엇인지요? (참고/요 6:35-36, 50-51)

적용하기



■ 적용찬양: 주가 일하시네, 예수 피를 힘입어

사역 소개  
안경

# 밝은 시력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베델교회 안경사역의 목적은 베델선교팀(단기선교/일일선교팀)이 방문하는 선교지의 현지인들에게 시력 검사, 맞춤 안경 제작, 돋보기 및 선글라스를 제공하여 베델의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현지인들도 안경, 돋보기,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현지인들이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 영적인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선교 현지에서 시력을 검사하고, 돋보기 테스트 후 이를 제공하며, 남녀용 선글라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교 후 베델교회에서는 시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 내에서 안경을 제작하고, 제작된 안경은 각 단기선교팀을

통해 선교사님들께 전달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를 직접 전달하시며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넓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선교팀에서 안경사역 담당자를 발굴하거나, 관심 있는 성도들을 모집한 후 자체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강좌와 대면 실습 교육을 통해 연 5회 이상 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는 손재주가 있는 10명의 집사님들과 2명의 권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으며, 은퇴 장로님들께서도 주중에 모이셔서 안경을 정성껏 제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협력과 헌신 속에서 사역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팀이 안경사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선

교지에서 안경사역의 폭이 넓어져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 성도님들 중 선교에 참여하고 싶지만 마땅한 사역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경사역에 함께하시어 선교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근 집사



사역 간증  
레위기도

# 설레임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에는 기도학교팀, 골방기도, 레위기도팀 등 다양한 기도의 자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속한 팀은 주일 1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레위기도팀입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지만, 한동안 1부 레위기도실은 적막할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 권사님과 두 가정, 단 다섯 명이 모여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였던 그 시작

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이제는 열한 명이 함께 모여 기도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일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기도문을 통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한발 앞서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팀을 위해, 한 주간 펼쳐질 교회 사역과 환우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고개 숙인 성도들의 심령 위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그리하여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 한 분도 없을 줄 확신합니다. 레위기도팀은 단순한 모임이 아

니라 예배를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돕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도팀 또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컨퍼런스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선희 권사

사역 간증  
임마누엘

#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도 보요!



올해 신임 권사로 맡게 된 섬김의 자리 중 하나가 임마누엘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름이 '임마누엘'일까 싶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몰랐던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정엄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민 생활로 정작 엄마께 식사 한 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엄마 연배의 어르신들을 섬기게 된 일이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올해 권사직을 맡게 되었고, 저의 섬김의 자리가 교회 차량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저 섬겨오신 오권사님과 집사님을 비롯해 전임 사역자분들도 두 팔 걷고 함께 돕는 손길들을 보며, 어쩌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떠나온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이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매주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받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간에도 주일에 예배에 오셨다가 주중에 낙상 사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일이 생겼고, 또 아프셔서 한 달씩 못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 하루가 그분들의 봄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니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뵈겠습니다.' 그 인사가 이제는 제게 감사의 고백이며, 임마누엘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은영 권사

가정의 달 특집 4  
믿음의 유산

## 오늘도 율조립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늘 시골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얗게 센 머리에 돋보기를 쓰시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시던 증조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셨는데 힘들지도 않으신지 식사 시간을 빼고는 성경에만 몰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다디달 수 있는지를... 다른 곳에 허비하는 1분 1초가 아까워 성경만 벗 삼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증조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읽으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늘 증조할머니가 엄마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천사 같은 우리 할머니, 옆에서 보면서 그냥 배우는 거지. 평생 사랑과 인내로 살아내셨던 그 모습이 산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 6·25전쟁 때도 같은 모습이었지.' 할머니께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셨는지 궁금해하는 나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삶이 곧 신앙이었던 증조할머니를 보며 자랐던 꼬꼬마 시절의 엄마에게 할머니는 곧 세상이자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증조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지금은 모든 식구가 크리스천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

방황하던 시절, 나는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이곳 미국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처럼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동기 권사님의 권유로 성경 말씀 100절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율조리며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힘,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 말씀의 능력을 하루하루 체험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몇 세대를 거치며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율조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황리나 권사



교회학교

쥬빌리 페스티벌

# 따뜻한 선물

지난주 금요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같았던 쥬빌리 페스티벌의 여운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 전부터 두 딸아이는 '엄마, 몇 밤 더 자야 축제해요?'라며 매일 아침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달력을 세어 보며 기대하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켜보는 어머니 제게도 그 기다림은 무척 설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기대와 기쁨이 하루하루 쌓여 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축제가 열린 교회 앞마당에는 신나는 놀이기구와 알록달록한 풍선아트, 고사리손을 내밀며 예쁜 손톱을 바라보던 네일아트,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표정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 현장은 단순히 즐거운 행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가 아닌, 교회라는 안전하고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며 공동체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놀이기구나 간식보다도 그날 느꼈던 행복함과 사랑받는 마음이 더 오래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기억들이 쌓여 언젠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과 영적인 감동을 선물해 주시고, 기도의 향기와 사랑의 손길로 이 복된 잔치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분의 귀한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들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신실하게 자라가기를,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보라 집사



교회학교

C2C 댄스

#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현대 사회는 수많은 악한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에만 머무르지 않고, 크리스천 댄스 문화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바로 C2C, 'Call to Christ'라는 청소년 크리스천 힙합 문화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C2C는 Daniel 선생님의 지도 아래 Alter Worship, 동요합창제, 베델 오이코스 및 헌금송 사역에 꾸준



히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2022년부터 시작한 C2C에서 친구들과 같은 동작을 외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몸치까지 물려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춘 빠르고 강렬한 리듬의 힙합 찬양은 제가 생각했던 차분한 위십과는 달랐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연습을 위해 매일 찬양을 들으며 거울 앞에서 반복해 연습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함께했습니다. 힘든 만큼 얻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을 함께한 C2C는 딸에게 큰 행복이 되었고, 친구, 동생들과 서로를 응원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

습니다. 아이의 춤과 입가의 환한 미소를 보면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저것이지?!'라는 생각이 들며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청소년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C2C는 단순히 춤만 추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청소년기의 아픔과 친구 관계, 학교생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아픈 친구 이야기를 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할 때면,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이들 안에서 믿음의 군사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10대들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40여 명의 C2C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섬겨주시는 정인주 팀장님,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하나 되어 온몸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지도해 주신 Daniel, Kalee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윤선 사모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중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요관: 오훈란

지역광고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2026년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이 오는 5월 31일(주일) 3부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양육반, 제자반, 말씀플러스, 전도 폭발, BAM 과정을 4-6개월 또는 1년 동안 충성스럽게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자반 수료자분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성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과정의 마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모든 양육 리더들도 함께 자리하여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과 축복 부탁드립니다.

- ▶ 일시/장소: 5월 31일(주일) 3부 예배, 본당
- ▶ 대상: 제자훈련 전과정 수료자 전원
- ▶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5/31: ①부-김문식	②부-김성균	③부-김도형	④부-도함준
	6/7: ①부-김문경	②부-김백열	③부-김근수	④부-류다빈
	6/14: ①부-김병인	②부-김병찬	③부-김응진	④부-전하은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5/30: 성주영	6/6: 손수국	6/13: 현승원	6/20: 오성남
	강단꽃(5,6월)   5/24: 배사라, 송미선	5/31: 선상균, 왕동원, 이인철	6/7: 김종현, 박은유	6/14: 장다혜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형국(안과), 간호사-최소진      다음주 | 의사-차계항(한 의사), 간호사-윤성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송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제 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6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6월 1일(월)부터 교회 홈페이지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월)~30일(화) 신청: 장학생 모집 홈페이지 (scholarship.bkc.org)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수요예배를 B2N 2027 순회 연합기도회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라!"(마 18:18-19) 2027년 B2N을 준비하는 순회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첫 모임을 베델교회에서 가지며, 이번 주 수요예배 대신 아래 일정으로 함께 모입니다. 수요예배 성도님들과 B2N 신청자는 꼭 참석해주세요. 일시/장소: 5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베델교회 본당 말씀: 김한요 목사 / 기도회 인도: 실크웨이브 선교회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양육반, 제자반, 말씀플러스, 전도폭발, BAM,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5월 31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B2N 2027 연합기도회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장소: 튀르키예 안탈리아/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비: 1인당 \$1,000 + 국제선 항공권 or 여행패키지 등록비 포함 항목: B2N 일정 간 호텔 숙박비, 공항-호텔 이동, 호텔-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이동,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입장료 (불포함: 국제선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필요시), 기타 개인 경비 등) 등록 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문의: 코트야드 부스,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현 장로 (949)648-1907

◆ 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온라인 두드림, 기도편지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30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 모집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에 많은 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인턴(2세)과 봉사자(1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3일(월)~16일(목), 박성남 장로 (949)697-8531

◆ 영유아·유치 VBS 봉사자 모집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실 어른 교사 및 중·고등부 TA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VBS 일정/문의: 6월 9일(화)~12일(금), 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 소망부 VBS 등록 2026 소망부 VBS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 소망부 VBS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며 은혜 가득한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일정: 7월 21일(화)~24일(금)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올여름 소망부 VBS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등록 및 교사모집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알 코드로 확인해주시고, 함께할 교사를 환영합니다. 신입생 및 일반등록: 5월 18일(월)~29일(금)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GMMA 봉사자 모집 2026 GMMA National Missions Conference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등록 바랍니다. 주제/일시: '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6월 25일(목)~27일(토) 등록: 코드야드 부스 또는 웹사이트(Volunteers CODE: 5MUXK46Z)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www.gmma7.org

◆ 큐티인 6월호 판매 QTin 6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2026년 하반기 준비를 위한 KM 목회자 정책 수양회가 5월 25일(월)~27일(수)에 있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Lists various church activities, services, and staff membe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Our lives are punctuated by deficiency and lack. Whether in times of poverty or wealth, deficiency and lack are things that always follow us. Please share what your current deficiencies or lacks are.

Apply to Life



**2.**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is the only miracle story that appears in all four Gospels. Let's summarize its importance in two points.

1) \_\_\_\_\_ (v. 20, Ref: Matt 16:16)

2) \_\_\_\_\_

**3.** What do you think was the Lord's intention behind His proposal,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v. 13, Ref: Jo 6:7, Mk 6:37)

**4.** What is the background setting where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take place? Let'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think about what Jesus might have anticipated. (v.12, v.14, Ref: Jo 6:4)

**5.** The words in verse 16 are the same words Jesus repeats to His disciples during the Last Supper. Please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explain what meaning they carry. In Jesus, rather than deficiency, what is it that remains? (Ref: Jo 6:35-36, 50-51)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